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10. 22 (금) 09:00	배포일시	2021. 10. 22.(금) 08:00
담당과장	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조현진 (044-215-4830)	담당자	박수민 사무관 sumin@korea.kr

「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」 및 「아세안+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」 결과 -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이슈 논의 -

1. 회의 개요

- 「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」와 「아세안+3 (한·중·일)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」가 10월21일(목) 화상으로 개최*됐다.

* 한중일 의장국: 일본/ 아세안+3 의장국: 한국, 브루나이

- 이번 회의는 한·중·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 10개국*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, 역내거시경제조사 기구(AMRO**), 국제통화기금(IMF) 아시아개발은행(ADB)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,

*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
** **ASEAN+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**(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): 역내 거시경제상황 점검 및 정책권고,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며, '11년 싱가포르에 설립 후 '16년 국제기구로 전환

- 역내 경제 동향 및 정책방향,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(CMIM*) 위기대응태세 강화, '22-'26 AMRO 중장기 업무 계획 등 역내 금융협력 주요의제를 논의했다.

* **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**: ASEAN+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(총 2,400억불 규모,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(분담비율 16%))

□ 특히, 한국은 브루나이와 함께 올해 아세안+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공동의장국(수석대표: 윤태식 국제경제 관리관)으로서,

-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(CMIM) 대체금리 선정, 역내통화 활용방안 등 핵심의제에 대한 이견 조율 및 신규 정책과제 논의를 주도했다.

2. 주요 논의사항

〈 역내 경제동향 및 경제정책 논의 〉

□ AMRO는 최근 올해 역내 성장전망 하향조정* 관련 델타변이 확산과 공급망 차질,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속도 등을 주요 하방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.

* AMRO 경제성장 전망: ('21년) 6.7%(3월)→6.1%, ('22년) 4.9%→5.0%

-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IMF(이창용 아태국장)는 아시아 지역은 인플레이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타 하방위험이 상존하며,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역내 빠른 백신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- IMF와 AMRO는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'엔데믹*'으로 전환' 될 것을 전망하며 위기극복 시까지 완화적 거시정책,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및 그린·디지털 경제 등 구조적 전환 대비를 제안했다.

* (팬데믹) 대유행병, (엔데믹) 주기적 감염병

- 회원국들은 역내 백신접종이 속도*를 내고 있어 '22년 역내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,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전환 대응에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.

* 역내 국가 대부분 '22년 초에는 각국 백신접종 목표치 달성 전망

- 윤태식 수석대표는 당면한 리스크 요인 및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, ②그린/디지털 경제 전환 대비 및 ③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제안했다.
-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등 다자 협력채널을 기반으로 역내 공급망의 약한 고리를 찾아 보강하고 자유로운 재화 및 인적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전체의 회복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.
- 또한 역내 그린·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의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언급하며,
 - 아시아개발은행(ADB)의 아시아 농업 전환 주제를론 관련 한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(KOPIA*)을 소개하고 국내 스마트팜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농업 디지털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- * 아시아 9개국(베트남, 미얀마, 우즈벡, 필리핀, 캄보디아, 태국, 스리랑카, 몽골, 라오스) 포함 20개국 대상 맞춤형 기술공여,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

< 역내 금융협력 강화 >

- ① (CMIM)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리보(LIBOR) 대체금리 선정, 역내통화 공여절차 마련 등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구체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.
- ② (AMRO) 금년 AMRO 설립(11.4월) 1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기구로서 AMRO 위상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경제에 대한 분석·정책권고 등 AMRO 업무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,

- AMRO 조직 확대, 역내 지식허브로서의 AMRO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둔 '22년 예산안 및 '22~'26년 중기업무계획을 승인하였다.

③ (미래과제) 아세안+3 미래과제 논의를 위해 올 하반기 4개 작업반*이 논의를 시작했으며, 한국은 핀테크 작업반을 주도하며 '22년까지 역내 오픈뱅킹 시스템** 도입 지원, 핀테크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.

* ① 인프라투자 지원 강화, ② 구조적 이슈 대응을 위한 지원 확충,
③ 기후변화 대응 협력, ④ 기술진보(핀테크) 정책공조 등

** 금융기관간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핀테크 기업 등 3자가 접근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금융 플랫폼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 고

아세안+3 금융협력 개요

□ (주요내용) '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위기방지를 위해 '99년 출범

- 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(CMIM*) : ASEAN+3 회원국 간
위기사 상호자금지원을 위한 지역금융안전망

→ 달러기반 다자 통화스왑 방식으로 총 2,400억불 규모**

* Chian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('10.3월 발효)

** (각국 분담금, 억불) (中)768 (日)768 (韓)384 (ASEAN 10개국)480

- ② 아세안+3 거시경제조사기구(AMRO*) : 역내 거시경제상황 점검 및
정책권고, CMIM 운용 지원 기능 등 수행

* ASEAN+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('11.4월 싱가포르에 설립)

- ③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(ABMI*) : 역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
역내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도모(우리나라 제안으로 '03년 출범)

*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

□ (협력체계) ADB 연차총회 계기에 ASEAN+3 장관회의 개최

○ 이를 보좌하기 위해 차관회의, 실무회의 등 연중 개최

* 공동의장국 : 한중일 1개국 + ASEAN 1개국이 맡아 회의 주관
(매년 순환 : '21년 韓·브루나이 → '22년 中·캄보디아)

